

뉴턴, 스티브 잡스, 선악과...인류사 흔든 '혁신 아이콘'

카워드로 보는 **名畫** 이야기

사과(apple)

미술사를 흔든 세잔의 사과 이야기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면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먹을 거리가 넘쳐난다.

봄에 움트기 시작한 씨앗들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결실을 만들어 내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기 때문이다.

조금 번덕스럽지만 다양함을 선사하는 4계절은 우리에게 결실을 축하하는 추석이라는 기간을 만들게 했고 여전히 그날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때 그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데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친척들을 만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던 터라 아쉬운 마음만 한가득이다.

먹거리 중 햇과일도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사과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과라고 하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이라 굳이 신경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말 그대로 흔한 과일이다.

그렇지만 의외로 인류사를 살펴보면 무언가 획기적인 발견을 해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킨 그 중심에는 종종 사과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 종려의 비밀을 밝혀낸 뉴턴의 사과, 컴퓨터와 휴대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스티브 잡스의 상징 애플,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까지...

'세상이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과는 종종 인류사를 뒤집어 엮어놓을 정도로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는 했었다.

미술사 속에서 혁신을 가져온 사과는 단연 20세기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화가 '폴 세잔의 사과'라 할 수 있다.

"나는 사과 한 알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라던 말 따라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세잔의 삶 속에 줄곧 등장하는 사과는 역시나 그의 인생과도 열거설기 얽혀 있었다.

화가로서의 인생도 절친 에밀 졸라가 건네준 한 알의 사과에서부터 시작된 걸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대미술의 아버지 세잔과 위대한 소설가 졸라의 우정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유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살았던 엑상프로방스에 가면 둘을 기념하는 '두 소년'이라는 카페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둘의 우정은 대단했다.



폴 세잔 작 '사과' <위키피디아 검색>

'절친' 에밀 졸라가 건넨 사과 한 알, 기존 미술사 판도 바뀌 40년 함께 한 '세잔의 사과'...신념으로 이룬 인생역전 표상

어린 시절 심한 근시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늘 파돌린 받던 에밀 졸라를 세잔은 살뜰히 챙겼다. 고마움에 둘은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됐고 비싸지는 않지만, 우정의 마음이 가득 담긴 사과를 세잔에게 건네고는 했던 졸라였다.

후에 세잔이 화가와 법률가라는 길에서 고민할 때도 졸라는 그가 화가로서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난 세잔은 가난했던 에밀 졸라와 달리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고, 법률가가 되길 바랐던 가족들은 화가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을 반대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듯, 후에 그를 누구보다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파리로 떠난 세잔은 졸라의 권유로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정식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의 실력은 당시 기준에서 형편이 없었고, 에콜 데 보자르 입학시험에도 거듭 실패하며 한동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860년대 초 미술아카데미에서 해마다 열리는 전람회에는 전통적인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양식을 따르지 않은 작품은 선택받지 못했다. 따라서 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었던 작품들은 대중에게도 알려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발하며 미술계에 동요가 일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나폴레옹 3세는 '낙선전' 개최를 지시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비평가들의 신랄한 비판과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야 만다. 이런 기류를 타고 세잔 또한 진보적인 화풍의 인상파 화가들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화가 피사로를 만나게 된다.

의심이 많고 까탈스러운 성격 탓에 모델을 세울 때도 150번 정도는 기본으로 자세교정을 보았다는 세잔의 괴팍한 성격을 유일하게 참아낸 이가 바로 피사로이기도 했다. 그에게서 인상주의 기법과 이론을 배우며 세잔의 색채는 점차 밝아졌고 점차 인상파의 붓 터치, 색감 등도 그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인상파의 특징을 보완해가며 점차 자신만의 화풍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먼저 빛을 통해 투사된 사물의 인상을 빠르게 눈을 통해 보고 화폭에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상파가 놓쳤던 형태를 되찾고자 했고, 찰나의 순간이 아닌 오랜 시간을 들여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해 사물의 본질을 그려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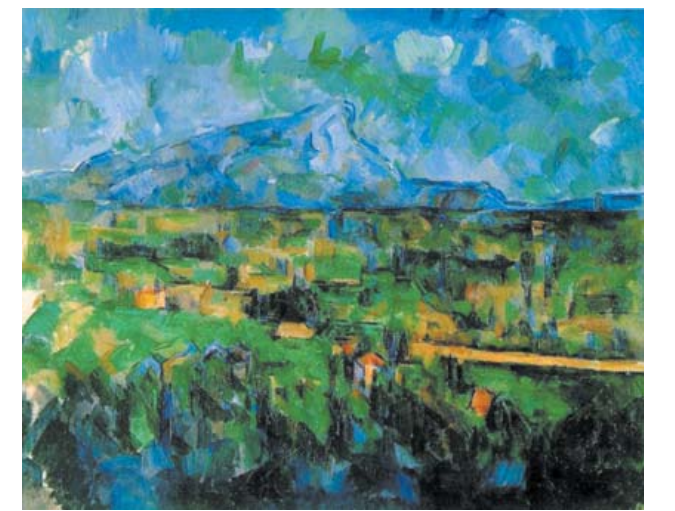
또한 그림에서 선(線)을 쓰는 대신 색채를 통해 사물의 본질과 비합리적인 원근감을 표현하고자 했던 감성적인 그의 화풍은 르네상스 이래 수백 년간 지속됐던 합리적인 원근법 등 서양회화의 전통을 완전히 전복시킬 만했다. 한마디로 그는 미술사의 판을 바꿔 놓았던 것이다.

작품 '사과와 오렌지'에서 보면 세잔의 혁신적인 사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언뜻 보아도 정 중앙에 있는 접시와 바닥에 쏟아진 듯 위태롭게 걸쳐있는 천은 시점이 맞지 않는다. 단순한 정물이지만 위, 아래, 좌, 우 다양한 시점에서 본 모습을 한 캔버스에 담았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도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사물들은 '원근법'이라는 견고한 법칙을 갖는 그런 세계처럼 결코 확실하지 않으며, '세잔의 회의'(doubt)처럼 고개만 살짝 돌려도 혹은 눈을 가늘게만 떠도 여지없이 다르게 보인다. 나아가 그가 추



폴 세잔 작 '사과와 오렌지' <위키피디아 검색>



폴 세잔 작 '생크비와르산' <위키피디아 검색>

구했던 사물의 본래 자태는 지성 작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선에 의해서는 그려질 수 없었으며 오직 색채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었다.

사과라는 정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들일 정도로 끈질기게 사물을 관찰했던 세잔의 노력은 그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록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성공을 맞은 순간이 56세라는 말년이었고, 긴 무명의 시간과 왕따처럼 고립됐던 적도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신념을 통해 이겨냈던 세잔이다.

그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에도 굴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게다가 마티스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기존 예술사에 균열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세잔의 사과'는 특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의 집념을 '고집'이라는 단어보다는 '높은 자존감'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았다.

"포기하지 마라"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릴지도 모르니 말이다.



이현남

<전남대미술이론박사수료>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